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란 “급한 불 껐지만...”

봉개동주민대책위원회, 반입금지 11월까지 일단 유예 시설 노후화로 악취저감 한계·색달 처리시설도 지연

우려했던 제주도 읍면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란이 일단 한숨을 돌렸다. 제주도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원회)가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의 악취로 지난 15일부터 읍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를 예고했는데, 지난 14일 임시총회에서 오는 11월까지 한시적으로 반입금지를 유예하면서다.

하지만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시설은 노후화로 악취 저감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제주시와 주민대책위원회가 협약한 사용기간은 내년 10월까지인데 이의 대체시설로 추진중인 서귀포시 색달동 광역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은 최근 입찰과정을 둘러

싼 잡음으로 준공시점은 더 늦춰져 2023년 하반기쯤으로 예상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란은 언제든 야기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봉개매립장에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는 하루평균 137~140t이다. 이 중 19개 동에서 시행하던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읍면까지 확대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봉개매립장에 반입이 시작된 5개 읍면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t 정도다. 반입에 앞선 협의에서 반입 물량을 모두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제주시의 입장에 주민대책위원회가 수용했지만 원활한 처리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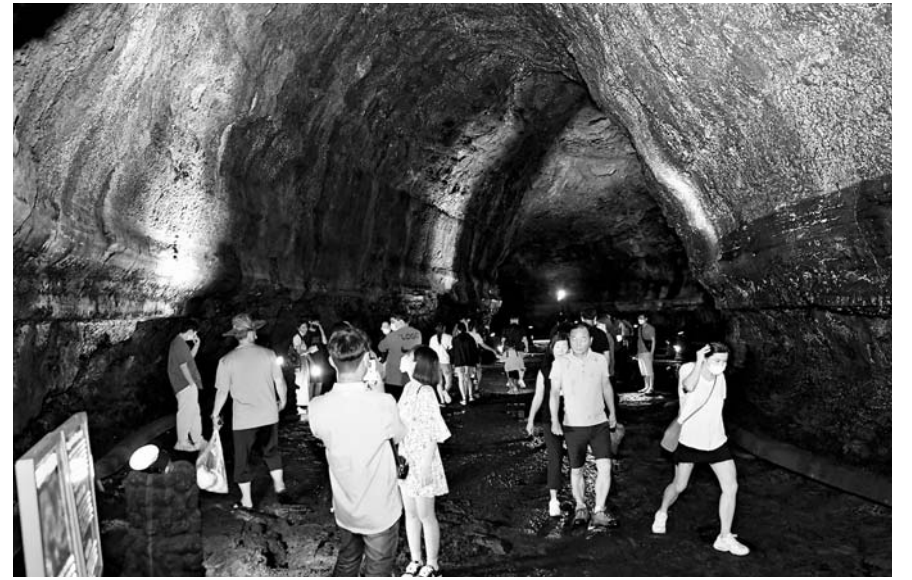
최근 주민대책위가 제주시에 읍면 발생 음식물쓰레기의 반입금지를 예고한 것도 악취 발생이 주민 원인이자 반입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소멸화 공법으로 퇴비를 만드는데 퇴비화시설 노후화로 지난 5월 한달동안은 퇴비를 만들지 못하고 하우스동에 쌓아두면서 심한 악취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만든 퇴비는 그동안 20kg 단위로 포장해 희망봉에 2000원에 판매해 왔는데, 퇴비포장시설도 노후화가 심각해 올해는 퇴비포장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퇴비는 비닐하우스에 쌓아둘 수밖에 없었고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악취 문제를 제기해 왔다.

주민대책위원회의 악취 저감대책 요구에 제주시는 음식물쓰레기 소멸화시설인 A동과 B동의 연결 통로를 만들어 악취를 차단시키고, 퇴비포장 공간도 11월까지 설치해 퇴비를 생산, 포장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제주시의 퇴비 제조와 포장 반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제주시와 주민대책위원회가 연장 합의한 음식물처리시설 사용기한은 2021년 10월 30일까지다. 대체시설 준공까지는 연장 사용이 불가피한데, 주민대책위원회와의 관련 협상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색달동 광역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이 완공되기까지는 현 봉개동 시설의 연장사용 외에는 방법이 없어 악취 저감시설과 함께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방침”이라며 “악취 저감을 위해 올해 47억원을 투입해 음식물자원화센터 노후화 탈취설비 교체·보강공사와 소멸화 A동과 B동 연결공사 등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불벌더위... 시원한 동굴로 불벌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15일 제주시 구좌읍 만장굴을 찾은 관광객들이 시원한 동굴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서귀포 해상서 스킨스쿠버 하던 관광객 숨져

서귀포 앞바다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던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뒤 인근 해상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던 A(44)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제주시내 병원에서 곧바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지난 14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분쯤 서귀포 운진항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던 A(44)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제주시내 병원에서 곧바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대전에서 제주로 여행을 온 관광객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동료 2명과 수상레저

업체에서 장비를 빌린 후 이날 오전 10시 40분쯤부터 바다에 들어갔다. 육상에서 이들을 감시하던 수상레저업체 측은 20여분 뒤인 오전 11시 2분쯤 A씨가 물 위에 떠올라 있는 것을 최초 발견해 해경에 신고하고, 바다에 뛰어들어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응급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해경은 스킨스쿠버 활동을 함께 하던 동료들과 수상레저업체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강다혜기자

“수영할래” 술 취해 바다로 풍덩... 50대 구조

야간에 술에 취한 채 수영하겠다고 제주 앞바다에 들어갔다다가 빠진 남성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16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1시 58분쯤 제주시 탐동 공원 앞 해상에서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해경은 50대로 추정되는 남성 A씨가 물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 구조했다.

당시 A씨는 의식을 잃었으나 구토 증상이 심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A씨는 음주 상태로 수영을 하겠다고 물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최근 열대야로 야간에 음주 후 바다에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인 만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다혜기자

몰래 내다버린 폐기물... 처리 비용만 연간 수억원

일부 몰치각한 이들이 야산 등에 몰래 내다버리는 폐기물 처리에 연간 수억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제주시는 공한지, 율령길, 야산 등 취약지역에 방치된 폐기물 788t을 오는 9월까지 2억8600만원을 투입해 집중수거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시는 7월 방치폐기물 실태조사를 통해 54곳에 버려진 폐기물을 확인했다.

시는 방치폐기물 처리와 함께 불법 투기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7월 말까지 불법투기 298건을 단속해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상반기에도 1억6300만원을 들여 방치폐기물 544t을 수거했다. 또 지난해에는 공한지 등에 방치된 폐기물 1125t을 2억6200만원을 들여 수거 처리하는 등 정비하면 또 일부에서 몰래 폐기물을 내다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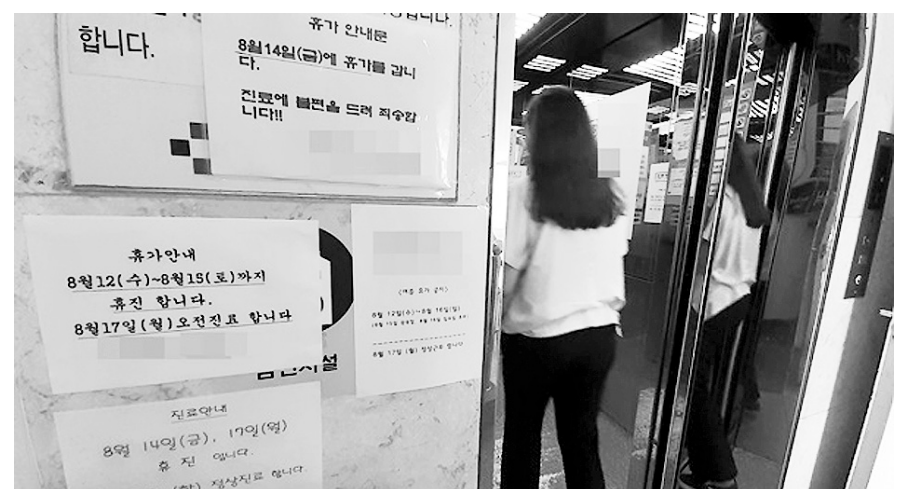
시 관계자는 “매년 폐기물을 정비하고 있지만 줄어들지 않으면서 환경오염은 물론 정경 제주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대형폐기물 신고배출과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실천 등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미숙기자

의사들 총파업에 곳곳서 환자들 ‘헛걸음’

14일 의사사회 파업 동참 도내 개인의원 39% 휴진 전공의 150여명 쫓겨나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지난 14일 전국의 사총파업에 나서며 제주지역 의사들도 총파업에 동참했다. 우려됐던 ‘의료대란’은 없었지만, 지역에서 1차 의료료를 담당하는 개인의원이나 다수 휴진해 일부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관할 보건소 등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역 개인 의원 451곳 중 39%(177곳)가 여름 휴가 등을 이유로 휴진했다. 일부 환자들은 휴진 사실을 모르고 병원에 찾았으나 발길을 돌리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휴진에 들어간 개인의원들은 저마다 병원 입구에 ‘여름 휴가’ 안내문을 부착해 놓은 상태였다. 다만 종합병원의 진료 차질은 크지 않았다.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필수인력이 근무하는데다 지난 7일 전공의 파업을 겪은 뒤 미리 이날 파업을 대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내 6개 종합병원과 8개 병원 등 14개 병원, 10개 요양병원, 47개 보건



지난 14일 제주시내 한 병원이 ‘휴진’ 안내문을 붙인 채 문을 닫아 진료료 위해 찾았던 시민이 헛걸음을 돌리고 있다. 강다혜기자

진료소는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했다. 국가 지침상 30% 이상의 병원이 휴진할 경우 ‘진료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제주도는 각 행정시와 논의한 결과 종합병원과 보건진료소가 모두 운영되고 있고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어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도 총파업에 동참했다. 제주도의사회는 이날 제주시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에서 도내 대학병원·종합병원 관계자, 전공의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대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총파업 결

기대회’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의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된 정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이후 벌어질 모든 책임은 정부 당국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에게 “환자의 아픔을 돌보는 의료계가 본의 아니게 불행한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잘못된 정책이 독단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배선설치부터 A/S까지 탁월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 원치않은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지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원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품질 소과일 감귤!
- 제라온 - 산함량 및 당도가 높으며 향기가 진한 레몬 (국내산 레몬)
- 하레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 탐나는봉 - 당함량이 높고 산함량도 높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 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실생 궁천, 흥진, 남진해, 신애감, 탐나는봉

가정원예 (조경수)
 2~7년생 하갈, 필삭, 세미늘,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니몬, 탕자모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64-782-2479 / 010-4736-247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3년생
감평	1,3,4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유라실생	3,4년생
탱자모	1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온(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리랑,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유라실생, 하레조생, 궁천, 궁천번이 (2년생 이상 100% 아삭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